

智異山 國立公園 探訪記

— 文化財를 찾아서 —

宋 智 鎬 (良書文化社 代表)

남들이 흔히하는 觀光旅行도 아니요. 그렇다고 山이 좋아 山을 찾는 登山客도 아니다. 다만 文化財에 홀딱 반해서 文化財大觀을 計劃하고 그렇게 말리는 주위의 권고도 물리치고 文化財大觀出版을 發行하면서 東家宿 西家食 하던 時節, 한點의 文化財를 찾아 구슬땀을 흘리며 찾아가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碑石이나 石塔뿐이라 그렇다고 特異한 樣式이나 紋樣 彫刻이었다면 아마 몇통의 필립이 소모되었으리라. 그렇게 외로히 山中에서 있으면서도 아무도 찾는이 없는 文化財의 모습과 지금 나 自身の 모습을 生覺할 때 “허울좋은 개살구”의 面目으로 「오버 랩」되며 지난날의 文化財를 찾아 헤매던 時節이 잊혀지질 않고 아직도 그에 대한 愛着을 저버릴 수가 없다.

智異山을 目標로 3泊4日의 짜여진 日程인차 乘用車를 利用하여 숨가쁘게 서울을 出發, 全北南原邑에 到着한 時間이 午後 3時, 땀을 씻을 겨를도 없이 찾아간곳이 南原邑王亭里 萬福寺址이다. 高麗때 創建以後 황폐한 寺址로 이제 復雜한 民家가 들어서 있고 寶物 30號 五層石塔이 洞里 텃 밭 한가운데 동그마니 서있다. 上層部는 破損되어 불품없는 꼴이다.

寶物31號 石座는 돌담사이에 이어져 無心한 農家의 담장 구실이 고작이고 초라한 표말에, 說明文만 뚜렷하다. 石座위에는 가시나무 한섬을 던져놓고 위에 아녀자의 빨래감들이 널리었다. 가시나무울이 다만 保護柵인 모습으로 남는다.

寶物 31 號 幢竿支柱를 찾아 동리 旣마의 案內를 받았다. 허탈하기 짝이 없다. 골목안 막다른 골목집 삼작기둥이 되어 버렸으니 말이다. 文化財를 촬영할 때 되도록이면 現實感覺을 피하기 마련이다. 참으로 어려운 作業이었다. 구

경하던 사람들중에 “우리집이 진짜인데 왜 우리집은 안들리시유” “할머니집에는 부처님이 계시유” 꼬마의 이야기 바로 맞았다. 寶物32號 石佛立像이로구나하고 발길을 옮겼다.

대문열 헛간에 모셔진 石佛立像은 圖像史에도 重要할뿐 아니라 彫刻面에서도 한時代를 代表하는 精巧한 石佛이다. 보살할멈에게 영험한 石佛의 자랑과 내가 한시주가 마음에 들었던 지 분에 넘치는 待遇를 해줬다. 불과 1時間餘에 萬福寺址의 촬영을 끝냈다. 피곤한 心身을 달래며 市內 旅人宿에 들러 아주머니의 친절과 소주 반주로 하루의 여독을 풀었다. 다음날 아침식사를 끝내고 燕谷寺를 向하여 섬진강 下流를 따라 花開面 所在地에서 피아골 노고단을 잇는 제곡의 비탈길을 타기 시작 했다. 花開에서 燕谷寺까지는 10 km이다. 양쪽 陵線은 45度의 가파른 地形을 開墾하여 한길이 넘는 돌담을 쌓아 계속층층 논이다. 논위로는 근 10 km 이어지는 능선에 뛰엄 뛰엄 울망출망한 부락들이 새마을 사업이 進捗되어 파랑 빨간색으로 산뜻하게 단장되어 있다.

그옛날 보던 초가치붕은 찾아 볼 수 없다. 마을 입구마다 정지 작업으로 마을길이 반듯 반듯하다. 마지막 洞里를 지날무렵 주막집앞에 이르러 목도추길겸 막걸리 한사발을 청했으나 막걸리는 아직 到着하지 않았고 그대신 「아이스콘」을 들게 되었다. 정말 기막힌 노릇이다. 막걸리보다 먼저 부라보콘이 지리산 증덕까지 불과 生産 몇時間만에 運搬되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니 中小 都市에만 있는 줄 알았던 여름 상품이 그것도 人跡이 드문 산골주막 까지 流通될 수 있다니 말이다. 땀을 식히고 연곡사에 到着한 時間이 午前10時 눈앞에 보이는 三層石塔과 만발한 벚꽃이 우리일행을 반겨준다.

양지 바른 언덕에 “ㄱ”자 스테이트 지붕이 연곡사란다. 그 옛날 웅장했던 佛敎文化의 殘形치고는 너무나 불품없이 초라하다. 庵子에서 주지스님과 童子가 뛰어나와 合掌하며 반긴다. 文化財를 찾아왔노라 說明하니 그렇게 반가워할 수가 없다. 燕谷寺는 數 많은 寺刹中에 가장 많은 國寶·寶物을 所有한 절이라고 자랑이 大端하다. 國寶 53號 東浮屠, 54號 北浮屠, 寶物 151號 三層石塔, 152號 玄學禪師塔碑, 寶物 153號 東浮屠, 寶物 154號 西浮屠 全部 野外에 있는 石造物로서 그 彫刻, 文樣의 形狀이 特異하며 名品이다. 반면에 그 保護와 管理가 放置狀態이다. 國寶 53號 東浮屠는 황태(黃苔) 現象(돌이삭는 형태로 누런 빛을 띠움)으로 壽命에 커다란 영향이 있다하고 다른 寶物은 그런데로 現狀維持 된다 하더라도 國寶만은 차라리 博物館이나, 서울로 移送 管理하던지, 樓閣이라도 지어 風雨라도 막았으면 싶다는 주지의 說明이다 한점 文化財를 촬영할 때 文樣으로부터 조각 形態에 이르기까지 수십점을 찍어야 한다. 全力을 다하여 촬영을 마쳤다. 뒤에 現象결과인데 숲속의 石造物이고 보니 그렇게 선명하지 않았다. 참으로 아까웠다. 산을 내려오

며 주지스님이 묻는다 “손님, 고사리 손퍼는 모습 보셨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요” “저기 보세요 고사리가 부득득 소리를 내며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주지의 설명을 듣고야 자세이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흙속에 뾰 조름이 내민 싹이 확퍼져 올라온다. 참으로 신기한 장면이다. 植物이 숨쉬는 순간을 직접눈으로 보는 것은 처음이며 自然의 神秘 스투움에 마음조차 경건해진다. 점심이라도 하고가라는 주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산을 내려와야 했다. 時間만 許諾된다면 내친 걸음에 그 아름답다는 피아골 계곡과 노고단까지 가고 싶었지만 다음으로 미루고 華嚴寺로 向하여 차를 몰았다. 華嚴寺에 到着한 時間이 午後1時 利用施設地域에 車를 세우고 든 점심이 진수성찬이라 500원짜리 백반에 반찬이 스므가지다. 도라지나물, 더덕구이, 고사리, 취, 두릅회야다 돼지불고기까지 몇점 걸들이니 山行中의 유별난 음식이 어디 또 있겠는가.

華嚴寺 境內에 들면서 주위는 天然紀念物 38號로 지정된 울벗나무가 만발하여 햇빛을 머금고 온천지가 핑크빛 一色이다. 覺皇殿 앞에 서면서 무엇부터 촬영을 시작해야 할지 망서리다가 우선 國寶 12號 覺皇殿앞 石燈에 카메라의 핀을 맞추었다. 韓國內 現存하는 石燈中 最大의 傑作이며 完全한 形態로 保存되고 있으며 覺皇殿의 추녀와 더불어 雄大한 모습은 주위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다. 國寶 67號 覺皇殿은 重層 팔각지붕 多包집이며 位置와 그 時刻의 處理問題등 카메라의[앵글]을 잡는데 여간 어려움이 많았다.

國寶 35號 四獅三層石塔, 寶物 277號 東五層石塔, 寶物 278號 西五層石塔, 寶物 444號 大雄殿, 寶物 445號 圓通殿獅子塔의 촬영을 마치고 나니 벌써 下午 4時가 넘었다.

다시 方向을 바꿔 부랴 부랴 南原으로 돌아와 廣寒樓에 到着 寶物 426號인 廣寒樓를 카메라에 담으며 정취에 취하다 보니 來日의 旅程이 너무 무리하게 느껴졌다. 다음날 아침도 걸



百丈庵 三層石塔 (國寶 第 10 號)



은제 새벽 6時 實相寺를 찾아 南原을 떠나 가 파른재를 넘어 운봉에 도착 주막집에 들러 아침을 배우고 자갈길을 터덜거리며 포뿌라 가로수가 늘어선 개울을 따라 달리다보니 山內面 立石리가 눈에 들어온다. 빨간 지붕의 주막집 앞에 차를 세웠다. 바지가랑이를 한껏 걷어 올리고 개울물은 건너는데 어떻게 발이 시려운지 견딜수가 없다. 천년을 견뎠은 돌다리 위로 물이 발목까지 채이고 이가 빠진 부분은 거센 물살이 허벅지 까지 차 오른다. 이제는 온몸까지 저러움을 이기며 약 50 m 이상을 간신히 건널 수 있었다.

언덕바지 느티나무밑 암반에 주저앉아 호흡을 가누며 뒤를 돌아보니 조그마한 돌비에 民俗資料 15號라고 쓰여진 표말이 보인다. 뜻밖에 옛 친구를 만난듯 반갑기 그지없다. 사방을 두리번 거리니 바로 눈 가운데에 石長性이 서 있지 않는가 한點의 文化財를 찾느라고 位置를 몰라 헤매이던 생각을 하니 그렇게 기쁨이 쩡할 수 밖에 없다. 實相寺에 到着하여 住持스님과 人事를 나누었다. 東國大學 승과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출국 서울에만 있다가 약 일주일전에 부임했다는 35~6歲가량의 해 맑은 표정은 펴 인상적이었다.

佛殿에 시주하고 넓은 대청에 안내 받아 향긋한 “갈차”를 대접받았다. 百丈庵 스님이 선사했다는 “葛茶”는 어른 허벅지만한 힘뿌리를 참숯불에 구어 기름틀에 짚아내어 토종꿀을 타서 만들었다며 위장병, 신경통에 좋다는 것이다. 그맛 또한 희안하다.

實相寺는 新羅時代의 古刹로 지금은 폐찰이나 다름 없고 주지 스님과 童子하나가 있을 뿐이지만 文化財의 노다지가 문헌곳이다.

寶物 178號 秀澈和尚楞伽寶月塔, 寶物 179號 秀澈和尚楞伽寶月塔碑, 寶物 180號 石燈, 寶物 181號浮屠, 寶物 182號 三層石塔, 寶物 183號 證覺大師擬寥塔, 寶物 184號 證覺大師擬寥塔碑, 寶物 186號 鐵製如來坐像 等이며 이 鐵製如來坐像은 日帝때 古鐵로 반쯤하고져 釜山 어느

倉庫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찾아왔노라고 했다. 오른손이 절단되어 임시 흙으로 形態만 만들어 놓았으며 殿閣을 補修 아직 丹青도 되지 않았고 實相寺의 경내의 建物은 거의 폐가에 가깝다.

藥水庵을 찾고자 물으니 걸어서 2時間 이란다. 寶物 566號 木彫幀畫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國寶 10號 實相寺 百丈庵을 찾기로 했다. 山內面 大井里에서 차를내려 山中으로 1時間가량 가파른 고개를 오르다 보니 길옆이 수길 낭떨어지다. 땀이 젖은 등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서늘함을 느낀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더욱 한기가 엄습해온다. 百丈庵은 대나무숲에 가려 보이지 않고 國寶 10號 三層石塔과 寶物 566號 石燈이 기와 담장안에 우뚝 서있다.

4月的 智異山에 太陽은 벌써 夕陽빛으로 물들어간다. 마음이 바쁘다. 近 30餘分 作業을 맞추고 百丈庵에 들러 寶物 566號 靑銅銀入 絲香爐까지 끝낼려고 하였으나 사방은 바람소리뿐 人跡이 없어 무서운 生覺마저 든다.

시끄러히 지저기는 산까치 소리는 마음을 더욱 조이게 한다. 뒤도 돌아 보지 않고 단숨에 山을 뛰어 내려왔다.

國寶 10號 百丈庵三層石塔이 完全 保存된 모습과 基壇 壁面 합장한 菩薩立像이 눈에 선하다.

이제 盜堀犯의 소행으로 完全히 파괴되었다니 아깝다 燕谷寺 주지스님의 말이 生覺난다.

「重要한 國寶를 차라리 小都市에라도 옮겨 管理했더라면 智異山에 문헌 國寶中, 가장 重要한 石塔이 人爲的으로 毀損되는일은 없을텐데」 3泊 4日 여정으로 約 30여점의 文化財를 印書한것에 불과하지만 筆者에게는 노다지를 캔셈이다. 참으로 지금 生覺해도 어려운 작업이었으며 만나는 사람이면 지금도 文化財의 貴重한 價値를 자랑삼아 얘기하게 된다. 내가 文化財를 찾는동안 잊지못할 智異山의 어머니같은 모습도 함께 오래오래 記憶하고 싶은 것이다.